



##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재인식하다 -장원섭, 『신라 삼국통일 연구』 (학연문화사, 2018)-

A New Understanding about historical significance on Silla's Unification of three nations - Chang, Won-seob, 『A Study on Silla's Unification』 (2018)-

---

저자 (Authors)	윤진석 Youn, Jin-Seok
출처 (Source)	<a href="#">한국고대사연구 (95)</a> , 2019.9, 401-414(14 pages) <a href="#">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95)</a> , 2019.9, 401-414(1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고대사학회</a>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598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5980</a>
APA Style	윤진석 (2019).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재인식하다 -장원섭, 『신라 삼국통일 연구』 (학연문화사, 2018)-. 한국고대사연구(95), 401-41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19/10/24 14:0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재인식하다

—장원섭, 『신라 삼국통일 연구』(학연문화사, 2018)—

윤진석\*

- I. 저자소개와 본서의 출간과정
- II. 내용분석
- III. 학술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
- IV. 몇 가지 오류와 추후 심화검토가 필요한 논점들

### I. 저자소개와 본서의 출간과정

올해(2019년) 초 『역사비평』에서 삼국통일을 주제로 봄·여름·가을 각 3편씩의 논문 연재를 특집으로 기획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자는 봄호와 여름호를 구해 읽고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6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삼국통일’을 부정하면서 제안된 명칭(신라의 백제통합)을 따르거나 별도의 새로운 명칭을

\* 계명대학교 박사

대표 논저 : 2014 「5~6세기 신라의 정치운영과 갈문왕」,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7 「신라 中古期の 왕위계승과 攝政」 『大丘史學』 126 ; 2019 「금석문을 통해 본 6세기 신라 법제와 지방민 인식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93.

제안(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평자 역시 완전한 삼국통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논문들의 제안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전근대 역사가로부터 근대 이후 오늘날의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선학들이 숙고 끝에 나름 가장 적합한 명칭으로 ‘삼국통일’ 또는 ‘삼국통합’을 선택한 고뇌의 시간들을 고려치 아니하고 성급하게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평자는 ‘삼국통일’에 관한 그간의 여러 시각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동료 연구자들에게 평자의 연구계획을 여러 번 공개하면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러던 중 동료 연구자 한 분으로부터 지난해(2018년) 9월에 출간된 본서 『신라 삼국통일 연구』를 읽어보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평자도 저서의 제목은 언뜻 들은 바 있으나, 저자의 이름이 생소하고 제목도 평이하여 강호제현의 저작 가운데 하나로 지레 짐작하고 염두에 두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 그런 류의 책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소개했던 연구자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본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박사학위논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본서의 저자는 오래 전에 한국고대 사료에 등장하는 ‘말갈’을 주제로 석사학위论문을 썼던 한국고대사 전공자라는 사실도 귀띔해 주었다.

본 서평을 준비하면서 저자를 인터뷰한 내용과 동료 연구자들의 전언을 종합한 저자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저자는 1980년대 초반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백제초기 東界의 형성에 관한 一考察- 靺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같은 해 12월 『청계사학』 7집에 수록되었는데, 賈耽의 『古今郡國志』의 춘천맥국설과 강릉예국설 기록에 주목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말갈은 춘천지역의 맥계말갈로, 신라본기에 보이는 말갈은 강릉지역의 예계말갈로 정리한 것으로서 당시 크게 주목받은 것이라고 한다. 추후 다른 연구자들의 말갈 연구에서 이 견해와 거의 유사한 견해가 나왔는데, 이 논문을 소개하지 않아 평자와 같은 신진연구자들에게는 생소했던 것이다.

저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학예사로 轉身하여 문화재보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일본 유출문화재 실태조사 등 관련된 활동을 하였으며, 세종옛돌박물관의 학예실장, 경민대학교 박물관장 등을 거쳐 현재 경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본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구복 교수의 지도와 노태돈·신종원·구난희·이강한 교수의 심사를 거쳐 완성한 박사학위논문(2018년 3월)을 출간한 것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견해들에 반하여, 긍정론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 II. 내용분석

저자는 본서를 집필하면서 7세기 후반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을 끌어낸 역사적 사건인 신라 삼국통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動因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석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에 따라 신라의 삼국통일이 7세기 후반 전쟁의 결과로 얻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국가적 역량의 소산이었음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다음과 같이 목차를 구성하였다.

###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 현황
  3. 연구 범위와 내용
- ### I. 신라 삼국통일의 배경
1. 국가체제 정비와 발전
    - 가. 중앙집권체제 정비

- 나. 왕권 강화와 영토 확장
- 2. 외래문화 수용과 사회통합정책
  - 가. 사상적 통합
  - 나. 사회통합정책
- 3. 新羅의 外交戰略과 羅唐同盟 구축
  - 가. 對百濟 외교전략
  - 나. 對高句麗 외교전략
  - 다. 對倭 외교전략
  - 라. 對唐 외교전략과 羅唐同盟의 성립
- II. 三國統一戰爭과 統一 後의 諸問題
  - 1. 三國統一戰爭
    - 가. 백제 멸망과 부흥운동
    - 나. 고구려 멸망과 부흥운동
    - 다. 唐의 百濟·高句麗故土 지배정책
    - 라. 羅唐戰爭과 삼국통일 완성
  - 2. 統一 後의 諸問題
    - 가. 행정제도 재편과 유민 통합정책
    - 나. 羅唐關係의 재정립
    - 다. 渤海와의 관계
  - 3. 신라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가. 정치사적 의의
    - 나. 문화사적 의의
    - 다. 민족형성사적 의의
- III. 신라 삼국통일론 논의와 인식의 변천
  - 1. 신라 삼국통일론 논의와 검토
    - 가. 신라 삼국통일론 검토

나. 백제통합전쟁론 검토

다. 남북국시대론 검토

## 2. 신라 삼국통일론 인식의 변천

가. 신라시대 삼국통일론 인식

나. 고려시대 삼국통일론 인식

다. 조선시대 삼국통일론 인식

라.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삼국통일론 인식

마. 광복 후 남북한 삼국통일론 인식

## 결론

본서의 본문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개의 논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장과 II장에서는 삼국 가운데 고대국가 형성이 가장 늦었던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한반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動因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장별 내용을 살펴보면 5세기 이후 신라가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외래문화의 발전적 수용과 사회통합정책의 시행으로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신라가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나당동맹을 이끌어냄으로써 삼국통일의 토대를 갖추어 가는 과정, 통일 후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새로운 통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 등이 순차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정치·외교·사상 등 다방면으로 방대한 연구를 검토했는데, 종래의 연구사정리를 참조한 것이 아니라 저자 스스로 면밀히 분석한 노력의 흔적이 드러난다.

다만 본서의 초안이 박사학위논문이며, 이 두 장의 서술이 전체 분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독창성이 찾아지지 않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의 극복과 남북분단 현실에서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수많은 과제를 사명으로 부여받았다. 그에 따라 각 주제별로 다양한 논박이 이루어졌고, 연구자의 수와 연구분야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민주화의 혜택으로 연구자들이 외압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학문연구다운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문자자료의 재판독, 전산화 활용 등 새로운 연구의 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자의 수 및 연구분야의 확대, 새로운 연구방법의 계발 등은 한편으로 연구자에게 보다 창의적인 연구를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창의적인 연구만이 올바른 연구이고, 기존 연구를 분석·정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의 바탕일 뿐 온전한 연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어느 사이 학계 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서를 살펴보면,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서술내용 대다수가 선행연구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고, 주석부분에서 저자 견해를 일부 제시한 부분 외에는 기발하고 발랄한 시각은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또한 저자의 시각과 부합하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도 비교적 완곡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어 가볍게 읽으면 강렬한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본서를 정독해보면 연구논문에서 과연 독창성이 필요조건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근자에 들어 과도한 상상을 보태는 연구논문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본서처럼 선행 연구를 꼼꼼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주로 200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최근의 연구성과는 많이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내정, 외교, 사상 분야가 주제별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어 각 시기별 내외사정의 변화상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학위논문의 목차구성 상 부득이한 면도 있어 보인다.

다음 Ⅲ장에서는 전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삼국통일’의 가부와 관련한 여러 담론들을 분석하고 저자의 견해를 밝혔다. 그간의 논박과정에서 대략의 연구사정리가 이루어졌으나, 본서와 같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자는 각각의 주장에 대한 요지와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박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에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였는데, 본서의 백미이므로 단락을 바꾸어 자세히 살펴보겠다.

### III. 학술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

7세기 후반 한반도를 무대로 벌어진 전쟁의 결과 신라가 ‘삼한일통’ 또는 ‘삼국통일’하였다는 것은 전근대부터의 일반적 시각이었다.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자들에 의해 발해사에 대한 인식과 ‘삼국통일’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여전히 ‘삼국통일’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삼국통일’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신재호의 『조선상고사』에서 비롯되었는데, 북한학계는 고조선-고구려-발해를 정통으로 하는 체계를 세우면서 이를 계승하여 위 전쟁 이후의 한국사를 ‘발해 및 후기신라’로 명명했다.

반면 한국학계는 삼국통일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고, 한편으로는 발해사도 한국사라는 시각에서 전쟁 이후를 대체로 ‘통일신라와 발해’로 명명했다. 그런데 1988년에 김영하가 ‘통일신라와 발해’가 형용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적 상황과 맞물린 역사가의 사회적 조건”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역사발전을 위하여”, “신라삼국통일의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른바 ‘(신라의) 백제통합론’이다.

주요 논지는 위 전쟁이 삼국통일전쟁이 아니라 나당연합에 의한 백제멸망 및 고구려멸망과 신라의 백제통합에 불과하며, 삼한일통의 관념은 전쟁 이후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추후 같은 논지의 논저를 거듭 발표하면서, 근대 이후의 삼국통일론이 식민사학자인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에 의해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해 서라도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하야시 다이스케의 연구는 윤선태에 의해 ‘근대역사학의 발명’이라 명명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먼저 현대의 삼국통일론, 백제통합전쟁론, 남북국시대론의 주장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나아가 삼국통일 직후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근대의 인식과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및 광복 후 남북한의 인식을 순서대로 검토하였다. 목차만을 살펴보면 순서가 뒤바뀐 느낌을 주는데, 아

마도 현대 연구자들의 시각차를 확인하고 각 시각의 가부를 논증하기 위해 시기별 인식변천을 재검토하는 방식을 취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단락에서는 관련 서술에서 학술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분석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먼저 나당전쟁을 포함한 통일신라론이 하야시 다이스케의 ‘발명’이라는 윤선태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소개했듯이, 근대의 삼국통일론이 하야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당초 김영하가 거론한 것인데, 2007년 윤선태는 이를 ‘발명’이라 명명하고 이후로도 4~5차례 재론하였으며, 최근 경상북도의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사업에도 당초의 논지대로 재수록하였다(4권의 마지막 단락이며, 해당 권의 책임연구자가 윤선태이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 2년 후인 2009년에 국문학자인 김홍규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윤선태는 신랄하게 재반론하였으며, 이후 김홍규의 답이 없었던 까닭에 역사학계 일단에서는 김홍규의 비판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윤선태의 위 주장이 재론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김홍규의 비판도 일부 의의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홍규의 논평 말미에 ‘발명’이란 단어의 경박함이 지적되었는데, 윤선태는 김홍규의 지적이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도 추후의 재론에서는 이 지적을 받아들여 ‘발명’을 삭제했다. 저자는 윤선태와 김홍규의 논박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 논쟁의 발단은 신라 삼국통일의 전반에 대한 내재적인 動因과 결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결핍된 하야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라고 논평하였다. 매우 부드러운 비판이라 다소 모호하지만 윤선태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연구자들은 염두에 두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신라의 삼국통합 영역 가운데 고구려 지역의 극히 일부가 포함되었을 뿐이라는 지적, 이른바 ‘지리결정론’에 대한 검토이다. 이러한 지적은 일찍이 한백겸이, 신라가 고구려의 옛 땅을 포기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약소국으로 전락한 주된 원인이라 언급한 데서 비롯되었는데, 추후 안정복, 유득공 등에 의해 계승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김영하에게 수용되어 ‘삼국통일’이 아니라 ‘백제통합’이란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에 노태돈은 고구려의 범위나 신라의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었다며 반론한 바 있다. 저자는 이러한 노태돈의 주장을 좀 더 보완하면서 지리결정론을 들어 신라의 삼국통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논증하였다. 나아가 신라의 삼국통일이 광활한 만주대륙을 우리 역사에서 잃어버린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주장으로부터, 그러하므로 ‘삼국통일’이 아니라 ‘백제통합’에 불과하다는 시각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의 소산이라고 비판하였다.

저자는 백제통합론의 논지 가운데 대다수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신채호와 이호영의 주장과 검토를 수용하여 확대한 것임을 규명하였다. 저자는 신채호의 역사인식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제기된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라 평가하였는데, 이런 면에서 현시대의 상황이 신채호의 시대와 같은 조건인지 반문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라는 속적인 백제에 대항하고 당은 속적인 고구려를 멸망시키려는 이해관계가 성립되었으며, 당시 신라인들에게는 백제만을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의식이었고 정책상의 목표였다는 주장이 당초 이호영의 견해라는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논점이다. 이호영은 ‘삼국통합’으로 이해하는 대표적 연구자이기 때문이다. 이호영은 훗날 위와 같은 논지를 일부 수정하였는데, 김영하는 이호영의 당초 논지와 동일한 논지로 7세기 후반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의 명칭을 ‘(신라의) 백제통합전쟁’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의 시작 시에 가졌던 의도가 어떠하다고 해서 결과를 무시하고 의도만을 바탕으로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역사는 인간활동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인 바, 인간사에서 ‘꿈’은 시작과 끝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꿈을 이루면

새로운 꿈을 꾸고 다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신과 육체를 가다듬는 것이 모 범적 인간의 자세가 아니던가. 저자는 위와 같은 백제통합론의 주장에 대해 “신라가 나당동맹을 통하여 처음부터 민족적인 차원의 통일 의식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신라가 과연 고구려까지 통합할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것은 비록 전쟁의 시작 단계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저자는 삼국통일전쟁의 개전인 660년의 백제공격에 대해, 주보돈과 최현화의 연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650년대 후반 당 지도부의 인식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과 659년 태종무열왕의 백제정벌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중국학계 일부에서 당 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을 허구라고 주장하거나, 위 백제통합설에서 당 태종이 약속한 ‘평양이남 백제토지’가 백제의 토지만을 지칭한다고 본 데에는 648년의 나당동맹 시의 계획이 660년 이후의 실제 전쟁에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실제 개전이 648년의 정세가 아니라 650년대 후반의 국제정세와 나당 양국의 당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진위여부와 해석여부는 실상 중요하지 않다. 발언 당사자인 당 태종이 이미 돌아갔고,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제정세와 각국의 인적구성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백제통합설 등 위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의미를 주요 논점으로 검토한 견해들(김영하, 윤정진)은 660년의 개전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본서에서 신라 삼국통일론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인식의 변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점은 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김정호의 『大東地志』에서 고려를 최초의 통일왕조로 인식하는 시각이 처음 나왔다는 점을 규명한 것은 아마도 본서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고려

의 최초 통일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나온 바 있는데, 저자는 전근대 실학자와 역사지리학자들의 저작을 면밀히 분석하여, 김정호가 유득공의 남북국 시대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려 태조에 의해 마침내 통일을 이룬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고려를 한국사 최초의 통일왕조로 이해한 선구자임을 확인하였다.

#### IV. 몇 가지 오류와 추후 심화검토가 필요한 논점들

본서 내용상의 오류 가운데 단순 誤字의 경우는 고쳐 읽을 수 있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중대한 오류 또는 독자가 오해할 만한 오자가 있다. 먼저 인용문에서 ‘평양이남의 백제토지’라고 표현한 곳이 두 군데 발견된다. 그런데 ‘평양이남의 백제토지’는 본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김영하의 해석이고, 저자의 시각대로라면 ‘평양이남과 백제토지’로 해석해야 하므로 큰 실수라 하겠다. 다음으로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를 ‘답설인귀서’라고 표현한 부분이 두세 군데 발견되는데, ‘답설인귀서’는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답서를 지칭하므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372쪽의 웅진도독부 관련 서술에서 ‘7주 51현’이라 기재하였는데 ‘52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본서에서는 648년에 체결된 나당동맹이 660년에 비로소 이행된 까닭에 대해, 앞서 소개했듯이, 649년 당 태종의 죽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659년 신라의 나당동맹 이행 촉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245쪽의 서술에서는 “당은 정관 19년(645)의 고구려 정벌이 실패한 데다가 태종의 죽음으로 정벌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659년에 고종이 즉위하여 태종의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재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 바,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오해하게 한다. 실제로는 649년 당 태

종의 죽음과 고종의 즉위로 정벌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수년 후 무척천의 황후 책봉 문제로 장손무기가 실각하고 무척천과 허경중이 실권을 잡으면서 다시 정벌논의가 재개되어 659년에 파병이 결정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밖에 백제부흥운동에 대한 새로운 용어의 제안, 계백의 신분문제, 도호부 문제 등은 저자의 신설에 해당하지만, 본서에서 굳이 필요한 서술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백제부흥운동의 용어문제는 저자 나름의 심혈을 기울인 것이겠지만, 평자의 시각에서는 본서에서 비판한 백제통합론 등의 새로운 용어 제안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바,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 이후 본서의 주제와 관련해 근자에 새롭게 제기되는 논점들에 대해 추후 저자가 좀 더 깊이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점을 언급하겠다. 물론 저자 뿐 아니라 평자를 비롯한 학계 일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먼저 나당전쟁의 개전 및 종전 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669년경 또는 670년 3월로 이해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두 견해는 결론에 차이가 있지만 670년 3월의 오골성전투에 주목하는 시각은 동일하다. 후자는 오골성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그대로 지목하고, 전자는 신라군의 출병을 개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평균기간을 고려하여 출병시기를 지목한 차이 정도이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 개전시점을 오골성전투 이후로 늦추어 보는 ‘신설’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전시기에 대한 견해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당전쟁의 성격과 주체에 대한 이해를 종래의 시각과 달리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이러한 신설들의 제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훈, 2009 「나당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체에 대한 재검토 -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2 참조).

본서의 저자는 669년 5월 신라의 사죄사 파견을 주목하고 있는데, 백제고지 점령 등 사죄사를 파견한 원인이 된 사건을 고려하면 오골성전투에 앞서

실질적인 나당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한 특징이 있다. 앞서 소개한 ‘신설’에서는 신라의 사죄사 파견을 나당전쟁이 개전하지 않은 근거로 이해하는 반면, 본서에서는 신라가 실제로는 당과의 결전을 결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준비해 가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사죄사를 파견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간 것으로 이해하는 차이가 있다. 평자로서는 저자의 시각이 합리적이라 여기지만, 본서의 출간 후 위와 같은 신설들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 설명을 보탬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나당전쟁의 종전시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재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기벌포전투를 허구로 여기거나 종전이 되지 않은 채 암묵적 휴전상태였다는 시각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처럼 기벌포전투의 승전을 종전으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제견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는데, 본서의 주제와 관련한 중요 논점이므로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사를 재검토하여 저자 시각의 타당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김영하의 ‘백제통합설’ 외에도 본서 출간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거나 제3의 명칭을 제안하는 새로운 주장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윤경진, 이재환, 권순홍 등의 주장이다. 먼저 윤경진은 김영하의 백제통합설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김영하의 논지에 반하여 김영하와 논박을 거듭하고 있다. 김영하가 삼한일통의식이 백제·고구려 멸망 후인 7세기 후반에 성립되었다고 보고 당 태종이 언급한 ‘평양이남 백제토지’가 ‘평양이남 중에서 백제토지’라고 해석한 반면, 윤경진은 삼한일통의식이 9세기에 비롯된 것이라면서 ‘평양이남 백제토지’도 ‘평양이남이 곧 백제토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재환은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일제가 사용한 ‘내선일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듯이 전근대 왕조에서 삼한일통이나 삼국통일이라 불렀다고 해서 따라 부를 필요가 없고, ‘삼국통일’이나 ‘신라의 백제통합’은 전쟁

의 중요 당사자인 당을 배제·소외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권순홍은 「역사용어에도 유효기한이 있다 - 신라 삼국통일의 균열」이라는 논문에서 김춘수의 ‘꽃’을 거론하며 민족과 한국사를 넘어 동아시아사적 시각에서 그 빛깔과 향기에 걸맞은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 지을 것을 제안했다. 평자로서는 공감미 가지 않는 주장들인데, 이에 대한 저자의 적절한 비판을 기대한다.